

“전통문화가 너무 좋아서 전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모로코 유학생, 전주시 일일명예시장 위촉

전주시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인 모로코 국적의 파티마 자라 마암리 씨를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전주시와 교류도시 관계인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전주로 유학 온 마암리 씨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평소 전주시에 애정이 많아 한옥마을 한복패션쇼에 직접 참가하는 등 전주 알리기에 적극 나서서 주목을 받았다.

마암리씨는 “전주 한옥마을을 사랑하고 비빔밥, 한옥 등 전통문화가 너무 좋아서 전주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며 “전통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주시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명예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척 설렌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마암리씨는 오전 일정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전주만의 특별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전주가 이끌어가고 있는 한문화의 매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명품 숲길인 ‘첫마중길’ 조성 현장을 둘러보면서, 길과 광장, 사탑과 자



전주시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인 모로코 국적의 파티마 자라 마암리 씨를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전주시 명예시장을 수행하면서 전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선물 받았다는 마암리 일일명예시장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 궁금했던 전

주시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전주시의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모로코의 마라케시와 전주시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은데, 앞으로 문화교류 등을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군산시사회복지협-중국 연변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진웅)는 최근 중국 연길에서 연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회복지 국제 교류를 시작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와 상호교류, 이를 위해 상호 초청 및 방문의 기회를 갖으며 또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시설종사자 중 실습이나 견학이 필요할 때 상호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상호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고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 첫 교류의 일환으로 금년 9월에 있는 군산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연변대학교 관계자들의 초청과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연변대학 뿐만 아니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펼치는 사회복지사업과의 업무교류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이어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조선족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신영화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사회변화와 한국의 사회복지”란 주제로 펼쳐진 특강을 통해 가족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었으며 참여한 연변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이런 기회들을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자주 갖기를 희망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강에 이어 연변지역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연변대학교와의 국제업무협약을 계기로 군산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한층 더 발전된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및 군산시주민생활지원과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군산=장현 기자



소성면, 전주대농촌봉사활동 참여 대학생 간담 격려

소성면은 지난달 29일 소성면에서 농촌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주대학교 대학생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이날 면 관계자들은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극심한 가뭄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또 시 홍보물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정음의 특산품과 떡거리,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정음에 높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소성면 애당리 모촌과 애당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농협, ‘새농민상 본상’ 2부부 배출

철보농협 조합원 이경연·김정숙 부부, 전주원협 조합원 김중천·최선희 부부가 30일 새농민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음시 철보면에서 외우농우농장을 22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경연·김정숙 부부는 1985년 한우 16두로 축산업을 시작해 현재는 한우별 수정계획표에 의한 생산관리, 경제성 있는 암소관리 등 분업형 가족농으로 한우를 키우고 있다.

지난 2008년 전북지역 한우농가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아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음시 새농민회 사무국장 등 농협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한 공로가 인정돼 새농민상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주시 전미동에서 35년째 미니리 농사를 짓고 있는 김중천·최선희 부부는 1982년 귀농하여 가업인 미니리로 본격적인 농업을 시작해 현재는 계획적 영농으로 고품질 미니리 생산 및 육묘를 생산하고 있다.

오랜 연구 끝에 자신만의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타 농가 대비 2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주원주시 새농민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주 미니리 고품질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해 지역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새농민상 본상을 수상했다. /안재용 기자



이경연



김정숙



김중천



최선희

종합민원과 직원 복분자 수확 ‘구슬땀’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지난 29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시기동 고경남 씨의 복분자(0.3ha) 밭에서 수확을 도왔다.

고씨는 “일손이 모자라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일손을 보태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들은 “내 고장에서 생산된 복분자 사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덕진서·완산서, 승진 임용식 가져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는 각 경찰서에서 서장, 각 과장, 승진대상자,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덕진서 승진대상자는 경비직전계 경감 박찬열, 여성청소년계 경감 오현선, 수사지원팀 경감 백민지, 역전파출소 경감 최이환, 강력팀 경위 김현, 덕진방순대 경사 정정호이다.

또한 완산서 승진대상자는 경제수사 2팀 경감 박찬규, 기동순찰대 2팀 경감 최지욱, 강력1팀 경감 신수용, 기동순찰대 경감 정정섭, 효자지구대 경위 강승원이다.

이날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및 서장과 가족들의 계급장 부착, 직장 동료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승진을 축하했다.

한편 완산서장은 대상자들의 승진을 축하하며 “말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무자세로 국민과 조국을 위해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9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789-0389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65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